

## 회 원 사 등 정

### (주)광명전기

#### 홍콩법인 설립

**수** 배전반 전문업체인 光明電機(대표 : 김영범)는 최근 홍콩에 9백만달러 규모의 자본금으로 「光明일렉트릭홍콩」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현지법인은 현지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중계무역을 통해 그동안 광명전기가 독일로부터 원부자재를 국내로 수입해오던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또 국내 완제품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이 현지법인이 원부자재를 국내에 들여오는 규모는 1차년도에 2천만달러이고 2차, 3차년도에 각각 3천만달러, 4천5백만달러이다. 또 완제품수출의 경우 2차년도에 3백만달러, 3차년도에 5백만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전기는 국내 수배전반 생산 시설을 점차 빌딩자동화시스템과 UPS(무정전전원장치) 등 고부가가치분야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중인 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대한전선(주)

#### 인도합작회사본격가동

**大**韓電線(대표:俞彩濬)이 인도 바달공단에 합작으로 세운 TDT코너사가 오는 7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TDT코너사는 가동도 하기

전에 이미 현지 전선업체들로부터 생산 제품을 쓰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았는가 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사업전망까지 밝아 인도 투자성공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지금까지 인도에 수출해온 제품이 우수한데다 전선분야에서 기술과 품질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현지 거래선 및 동종업계 경쟁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전원확보 등을 비롯 인프라분야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인도정부 측도 인프라사업 장치기업으로서 TDT코퍼사의 사업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TDT코퍼사가 생산하게 될 제품은 전선용 원자재인 8mm 동선(동로트드)으로서 대한전선이 지금까지 인도 케이블업체에 연간 7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온 제품이다.

TDT코퍼사는 이 현지공장에서 1차년도 매출 목표를 1억달러로 잡고 생산물량이 나오는 대로 현지 전선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선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시장성도 양호해 매출목표 달성이 무난하다는 것이 TDT코퍼사측의 예상이다.

현재 인도의 동선수요는 10~12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현지 생산공급량은 5만4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전력사업확충으로 수요량이 이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인도의 기존 2개사의 연간 생산량은 5만톤에 머물러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TDT코퍼사는 6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을 비롯 일본의 도멘사, 인도의 텔톤케이블사 등 3개 업체가 공

동으로 설립한 인도 최초의 3개국 합작기업이다.

대한전선은 이 현지공장에 기술수출과 함께 20여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에 주력하고 일본의 종합상사인 도멘사는 원자재인 전기동의 수배 및 공급을 맡게 된다.

### 삼화기연(주)

#### EOCR-3DD개발시판

**전** 지식과전류 보호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三和技研(대표:金仁錫)이 최근 기존 제품에 첨단기능을 새롭게 부가한 EOCR-3DD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이 제품은 보호기능 외에 감시기능을 첨가, 모터보호계전기에 관한한 최정결정판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과부하보호, 결상보호, 역상보호, 상불평형보호, 구속보호, 단락보호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삼상전류의 표시가 가능하고 모터의 부하율 체크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장시 즉시 고장원인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 고장의 사전예방 및 고장에 따른 복구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LG전선(주)

#### 배전용케이블 일본에 수출

**LG** 전선(대표:권문구)이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전력

## 회원사동정

공급 회사에 배전용 케이블을 수출한다.

LG전선은 최근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인 東京電力과 1년 동안 100만달러 규모의 중저압 배전용케이블(600V급)을 공급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전용 케이블은 변전소로부터 빌딩·수용가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인입선으로 주로 1000V나 600V의 전선을 사용한다.

東京電力에 대한 이같은 계약은 일본이 스미토모, 히타치, 후루가와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출에 있어서 LG전선이 기술과 가격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LG전선은 앞으로 1년 동안 4회에 걸쳐 공급할 예정인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일본내 다른 전력회사까지 수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고압용 가공송전선과 다른 기기용전선까지 일본수출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LG전선은 그동안 외국 선진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통신케이블용 열수축 슬리브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게 됐다고 지난 5월 2일 발표했다.

LG전선이 이번에 수출하는 열수축슬리브는 총 100만달러 규모로 중국의 광동성과 인도의 체신청에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모두 3개월간에 걸쳐 선적을 마칠 예정이다.

열수축슬리브는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재질의 특성을 이용해 통신케이블의 단면과 단면을 이어 주는 접속관으로 국산 제품이 외국에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통신케이블용 열수축슬리브는 미국의 레이캠(Raychem)사가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왔는데 이번에 LG전선이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해 세계특허 등록을 얻음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선은 태국, 인도 등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이집트와 사우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인데 내년까지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 제15회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성료

**전**국 전기공사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15회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가 4월 2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박운희)내에 설치된 특설경기장에서 펼쳐져 외국가공선·외선지중선·동력배선·옥내배선 등 4개분야에서 18개지역 대표로 참여한 126명이 기량을 겨뤘 최종 입상한 21명의 올해 최고의 전기공사기능인을 뽑았다.

이날 종합우승은 3인 1조로 4개 부분에서 가장 평가배점이 높은 외선가공선부문 1위를 차지한 광주지부(지부장 이찬형)에게 돌아갔다.

종합준우승은 외선지중선부문에서 1위에 오른 경기지부(지부장 박용학), 종합 3위는 동력배선에서 1위를 차지한 대전지부(지부장 김학형)에서 각각 거머쥐었다.

주최자인 박운희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을 비롯 조순승 국회통산산업위원장, 박수훈 통산부전력심의관, 송병권 한전 배전처장, 김복현 한전강서지점장, 최현수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권용득 대한전기기사협회장 등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8시간의 마라톤 경기를 펼친 이번 대회는 박만희 심사위원장(협회남부지부장·기술개발위원장)의 심사 총평처럼 △외선에서는 안전시공이 △동력배선에는 자동화 및 정밀시공이 △옥내 배선에서는 최첨단 품질시공이 △지중선에서는 완성도 높은 시공이 이루어져 대회 참여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날 4개 분야 1, 2, 3위에 입상한 21명에게는 전기공사기능사 2급자격증이 전격 부여되는 특전이 뒤따랐다.

또한 각 분야 1위 7명에게는 통산부장관표창과 부상, 우수상 7명과 장려상 7명 등 14명에게는 전기공사협회 회장표창과 부상이 주어졌다.

이 대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최와 통산산업부, 노동부의 후원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 LG산전(주)

####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KT(국산신기술) 마크 획득

**LG** 산전(대표:李鍾秀)의 실시간 교통신호제어시스템(모델명: Super Tracom)이 과거처로부터 KT(국산신기술)마크를 획득했다.

정부가 국산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자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우수성

## 회원사동정

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 KT마크를 LG산전이 업계 최초로 획득함으로써 국내 교통제어기술의 한단계 발전과 해외업체의 국내 공략에 맞서는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실시간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기존 교통관제시스템이 과거의 교통량에 근거한 고정주기제어방식을 채택한 것에 반해 변화되는 교통상황을 즉각(實시간)감지해서 교통흐름을 최적화하는 첨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LG산전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선진제품과는 달리 교통상황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형 첨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차량주행속도는 12~16%를 개선할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22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추정효과를 도출한 바 있을 정도로 제어 성능이 탁월하다.

국내 교통상황으로 볼 때 주행속도 1% 개선에 드는 도로건설 비용이 2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2~16%의 차량주행속도 개선은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현재 선진 각국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미래의 첨단교통체계인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번 KT마크 획득은 향후 정부 및 업계의 ITS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LG산전은 현재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교통정보제공시스템(교통신호제어시스템에서 수집·가공된 교통자료를 시민에게 제공)과

ITS 구축을 위한 주요 부가시스템의 개발도 완료 단계에 있다.

한편, LG산전의 배선용차단기(MCB) BKM Series 36개 제품이 국내 최초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1차 수출분 2억원의 주문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출활동에 들어갔다.

LG산전은 그동안 배선용차단기의 이스라엘 수출을 위하여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이스라엘 형식승인 규격을 획득함과 동시에 금년도 이스라엘 전체시장(약 100억원)의 10%인 10억원을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수출하게 된 배선용차단기는 국내 KS마크 획득은 물론 국제표준규격과 영국규격 등 여러 가지 국제규격획득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특히 배선용차단기 BKM Series 36개 제품 중 극소용량인 1~6A까지의 제품은 기존제품이 10A(암페어)부터 생산되어 극소용량을 필요로 하는 공장기계의 제어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던 단점을 해소한 제품으로 현재 공장기계 제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로보호기 대응으로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가격을 절반수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제품은 기존 배선용차단기의 결합방식이 나사(Bolt)결합방식으로 제품의 고장시 나사를 풀고 조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단레일(DIN-RAIL)결합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크기와 중량을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분전반용 차단기와 비교하여 30% 축소된 초소형을 실현하여 분전반 설치시 최적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제품이 이상전류가 흘

러도 서서히 차단해 주는 바이메탈에 의한 한시특성만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이번 제품은 한시특성은 물론 이상전류가 흐를시 순간적으로 차단해 주는 전자식 마그네틱에 의한 순시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이상전류가 흐르더라도 부하단의 제품을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화재 등 또다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단용량도 기존제품이 최대 1.5kA까지 차단해 주는데 비하여 이번 제품은 약 7배가 향상된 10kA까지 차단할 수 있게 하여 단락사고나 순간적인 외부이상전류가 흐르게 되어도 신속히 차단해 부하단의 제품을 보호하게 하였다.

LG산전은 이번 제품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연간 15억원의 매출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LG산전은 54개 사업품목 이양과 사업운영기금 100억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중소 협력업체가 당면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애로사항 해결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지원까지 마련된 이번 중소기업체 종합지원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휠얼라인먼트, 휠밸런스, 고압기기 부품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한 사업이양으로 올해안에 33개 협력업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난 해부터 실시된 사업품목 이양은 완제품, 중간품, 단일품으로 구분하여 협력업체에 적당한 사업품목을 선정했는데, 지난 '95년에는 소형 마그네틱스 위치, CAC(공기청정기)등 173개 품목을 이양한 바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중소기업용 사업품목을 완전 이양하여 협력업체와의 공동 성장을 꾀할 방침이다.